

한국 전통 색채관에 관한 연구

- 전통복식을 중심으로 -

음정선*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한국의 전통문화는 중국, 일본과 함께 동양의 문화라는 큰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동양 이외의 장소에서 바라보는 동양 문화는 한국 보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의 특성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문화의 독창성은 동양문화의 공통성과 일반성에 가려져 빛을 잃고 있다. 특히 색은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분모도 있지만 문화에 따라서 상징, 인지하는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동양권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색채관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공유하는 부분이 크지만,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동양의 색채관의 근본은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나, 서로 다른 나라마다의 자연적, 지리적 환경, 민족성, 풍습 등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며, 독창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나라마다 독특한 색채관을 형성하며, 최근에는 전통문화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에도 그 여운을 남기며, 디자인의 독창성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세계 패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 현대 패션은 그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형태, 디테일뿐만 아니라 색채에서도 그 이미지를 찾아내어 그들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색채관의 바탕이 된 정신사상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전통 색채관에 내재된 민족적 색채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국의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색채관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하여 그 독자적 색채관을 밝힌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고찰된 한국의 색채관이 전통복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한국 복식사에 대한 문헌연구와 생활 풍속사에 나타난 색채에 대한 문헌연구, 회화나 유물에 나타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색채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한국의 색채관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대에서 근세까지 양국의 색채관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가 병행되었으며, 문헌연구로는 미술사, 민속, 복식, 색채 관련 국내외 문헌들과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실증연구는 복식

* Corresponding Author: eumjungsun@hotmail.com

이 등장한 그림 자료와 유물 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 정신사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삼국시대는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외래사상의 전래로 이들이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고려시대는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융성을 특징으로 하며, 조선시대는 지배계층의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피지배계층에는 무교, 불교, 도교, 실학등의 정신사상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색채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음양오행사상으로 보여진다.

둘째, 한국의 색채관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삼국시대는 오방색의 원색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인 색채관을 가진다.

고려시대는 원색중심의 색채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가라앉은 세련된 색채가 특징이다. 불화에 자주 사용된 금색과 고려청자의 비색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색채 사용법과 배색법이 주로 사용된다.

셋째, 시대별 전통 복색을 살펴보면

고대시기인 삼국시대의 복색은 고구려고분벽화와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오방색과 자색인 자색과 녹색이 쓰였고, 소색과 황토색의 복식이 대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세인 고려시대는 귀색으로는 황색, 홍색, 자색 등으로 불화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금색의 문양으로 옷을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백의를 선호하였다.

근세인 조선시대는 그 당시 색채관을 복색에도 반영하여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원색배색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복색 연구를 떠난 전통색채의 기초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색채 고대의 색채부터 고찰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시대가 올라갈수록 표현된 색채의 상태가 바램, 손상 등으로 온전치 않아 정확한 색채를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복식에 사용된 한국 전통 색채관을 구분하고 특징지음으로써, 전통을 현대화하는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을 위한 앞으로의 작업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램이다.